



**건협 전북지부, 생활안전 꾸러미 100세트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문창섭,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15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 교육장에서 '마음 담은 생활안전 꾸러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건협 전북지부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진행하는 것으로, 도내 보육 및 양육시설 12곳에 KF94 마스크, 마스크 스트랩, 예코백, 바디로션, 어린이 가방 안전덮개로 구성된 꾸러미 100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협 전북지부는 쌀, 생필품, 난방용품, 김장김치 등 관내 소외계층에 다양한 후원을 한 바 있다. 건협 전북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아직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작은 나눔이 모여 지역사회를 보다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지리산한지,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원시는 광치동 농공단지에 위치한 지리산한지(유) 대표 김동훈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리산한지는 한국 고유의 제조법으로 전통한지의 장점을 살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종이생산 업체로 국내 최초 한지사를 개발한 업체로, 김 대표는 3대째 한지공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지속가능경영 유공업체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창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비전대 지적토목학과 31명 공무원·공기업 취업**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문용규)는 2021년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반기 채용시험에서 지적토목학과 학생 5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공무원과 공기업에 각각 17명, 14명이 합격해 총 31명이 취업했다. 지적토목학과는 2020년 33명, 2019년 32명의 합격생을 배출해 매년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무원 및 공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김지성 학과장은 "교육프로그램과 전주비전대학교의 교육서비스가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은성 기자



**학원연합회 전북지회, 도교육청에 장학금 기탁**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는 도교육청에 사랑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현철 지회장을 비롯한 정순화 부지회장, 강동원 사무국장 등 임원진 3명은 이날 전북교육청을 방문, 김승환 교육감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전북지회는 지난 2015년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1,000만원 기탁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김승환 교육감은 "장학금을 기탁해 준 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를 통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중앙 부처와 구체적인 논의 토대 마련**

**이소진 지역농업네트워크 센터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위촉**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소진 센터장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으로 위촉돼 전북의 지역 현안사업과 농업·농촌 분야 사업을 중앙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4년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라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이후 17년에 걸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코로나19,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감소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위촉위원 14명 중 1명인 이소진 센터장은 당연직 위임(장관 등)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분석·평가하고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이소진 센터장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농업·농촌 분야 전문가로, 전라북도 산락농정위원회,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전라북도 가계안정 심의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김윤상 기자



**완주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완주군 기독교연합회(회장 이명렬 목사)는 15일 생물교회(담임 이명렬 목사)에서 제16회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원선출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진 임원선거에서 수석부회장 이병운 목사(열린침례교회)가 16회 회장에 선출됐다. 또 수석부회장에 이재연 목사(소양교회)가 선임된 것을 비롯해 총무 서유란 목사(광강교회), 회계 이명로 장로, 서기 유장훈 목사(비봉교회) 등이 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임회장 이병운 목사는 "부족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모든 활동이 위축되고 관내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완주군기독교연합회가 관내 교회들과 지역사회에 소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부 예배를 마친 뒤 2부 총회를 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회칙개정, 임원선거, 안건토의 등 회무를 처리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대병원 유상호 사원, 산자부장관 표창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시설과 전기팀 유상호 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주관하는 '2021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1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시설과 전기팀 유상호 사원은 전기안전관리와 재난예방 분야에서 국민의 전기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 사원은 지난 2015년 5월 전북대병원에 입사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공사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감염병 대응센터 신축공사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전북지역안전센터 증축공사에서 전기공사 감독으로 참여해 국민의 의료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음압격리병동, 백신 냉장고 등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에서 진행하는 정밀안전진단과 자체훈련 등을 통해 전력수급위기나 기타 사고로부터 정전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유상호 사원은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좋은 시선으로 봐주셔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수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되어 전북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편의성 향상에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제3회 정읍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봉)은 관내 청소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를 지난 3일 오후 7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창단된 정읍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진행되는 교향악단활동을 통해 학교음악교육과정에 대한 학습능력을 높이고 음악 예술적 깊이를 고양하는 등 교과 외 다양한 활동으로 전인적 품성의 도야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및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날 연주회는 정읍청소년오케스트라 오인표 심임지휘자 지휘에 오케레타 박위서곡의 9곡을 바이올린, 첼로, 목관, 금관, 타악기로 총 40명에서 44명까지 총 40명의 단원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음악 선율을 선보였다. 특히 마지막 앙블 곡인 에드워드 엘가의 작곡 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주하면서 악기 파트별로 인사하는 모습은 가슴 뭉클하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김수봉 교육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부터 무거운 악기들을 들고 메고 3층 계단을 올라오던 우리 학생들의 정성과 노력이 오늘의 연주회장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2021 Startup Class 100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주대학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한 '2021 Startup Class 100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 Startup Class 100 경진대회는 예비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실전 창업에 대한 지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춘 우수 교육자를 발굴하고자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진대회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주대학교의 K-MOOC '문화융합시대의 창업' 강좌는 전주대 창업교육센터장 김기정 교수가 총괄하고,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8개 회원교 교수들이 참여해 온라인 형식으로 강좌를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상품 디자인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디자인 씽킹과 창업 ▲메이커 활동을 통한 성공 창업 ▲



클라우드프린팅 기초부터 실전까지 ▲인터넷 콘텐츠 창작과 1인 방송 시스템 ▲예비창업자를 위한 법률 지식 ▲농촌을 디자인하다 ▲문화예술을 통한 소셜벤처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이다. 전주대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은 "이번 창업경쟁이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강좌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질적 성장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의 로드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강좌는 K-MOOC 사이트 (<http://www.kmo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성료**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는 지난 14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2021 전주교육대학교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은 매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교수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공동으로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올해는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격차를 교육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개최식은 김우영 총장의 환영사와 김승환 교육감, 김성주 국회의원의, 김운덕 국회의원의 축사, 그리고 김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의 개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격차에 관한 교육 방안'을 주제로 평촌 미아오 박사(유네스코 교육분야 기술 및 인공지능팀장)가 맡았다. 세션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은혁기 초등교육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총 4개의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세션에서는 '정보격차'라는 주제로 정영식 기획처장(컴퓨터교육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4개의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우영 총장은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전주교육대학교가 이번 국제학술대회로 초등교육의 미래모습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우영 총장은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전주교육대학교가 이번 국제학술대회로 초등교육의 미래모습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평화2동 전주영락교회, 저소득층 위한 물품 후원**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전주영락교회(담임목사 김사무엘)는 지난 14일 동 주민센터(동장 김현욱)를 찾아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100박스(2백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김사무엘 담임목사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는 때보다 더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졌는데 연말을 맞아 주변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후원을 하게 되었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 아동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10가정을 매월 지원할 예정이며 더불어 실천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도동동, 성금 기탁 이어져**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서규광)에 희망2022 나눔캠페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스타에듀 여학원의 신명섭 대표의 라면(70만원 상당), 8일에는 도동동 주민자치위원회 문강현 위원장 현금 100만원, 14일에는 참단엔지니어링 이재혁 대표가 현금 200만원, 15일에는 도동동 통장협의회(회장 우광호)가 현금 400만원을 기탁했다. 통장협의회에의 기탁은 46명의 통장들이 10만원씩 자발적으로 출연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마련하였으며, 13년째 선정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서규광 동장은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기부자들과 통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